

식민지 근대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이영아*

〈차례〉

1. 서론
2. 2000년대 이후 한국 식민지 근대 여성 문학 연구의 특징과 성과
3. 식민지 근대 여성 문학 연구의 한계와 과제
4. 한국 여성문학사, 왜 '안/못' 쓰나?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식민지 근대 시기의 여성문학연구에 대해 개괄하고, 그 성격 및 한계와 전망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했다.

오늘날 여성문학연구는 많은 난제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여성문학 연구가 보다 구체적이고 민감하게 현재적 문제의식과 맞닿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문학 연구가 여성작가·작품의 범주 내부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극복이 요구된다. 셋째, 불연속적이고 단편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여성문학사의 기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아직까지도 여성문학연구의 중심점이 될 만한 총체적인 한국근대여성문학사가 기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한국 여성문학론이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다. 여성문학사가 산출되기 어려운 것은 여성문학의 흐름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할 만한 연구환경이 여성문학 연구자들에게 주어지지

*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인문교양학부 조교수

않기 때문이다.

한국문학연구 분야에 여성연구자들의 수는 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가했으나, 아직도 ‘여성’ 문학연구자들과 ‘여성문학’ 연구자들은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다. 여성문학 연구자들이 여성해방의 근원적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여성문학의 연구를 통해서 뿐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실천적 연대와 투쟁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핵심어: 여성문학, 여성문학연구, 여성문학사, 여성연구자, 연구환경, 식민지 근대성

1. 서론

일화 하나. 2011년도 1학기 모 대학에서 ‘현대한국문학과 성’이라는 교양강좌를 맡았었다. 이 강의는 그 이전 학기까지 ‘현대한국문학과 여성’이라는 제목의 강좌였으나, 올해부터 ‘여성’ 대신 ‘성’으로 바꾼 것이었다. 수강 정원 60명이 빼곡히 찼다. 그런데 첫 수업 날 오리엔테이션으로 이 강좌의 ‘유래’에 대해 설명하며, 따라서 이때의 ‘성’은 ‘gender’의 의미이니 혹시나 ‘sex(uality)’로 기대하고 온 사람이 있다면 다른 강좌로 수강신청변경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또한 이번 학기 수업은 1900년대부터 해방 이전까지의 소설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랬는데 이 첫 수업 후 실제로 십 여 명의 학생들이 이 수업에서 빠져나갔다.

이 일은 현재 한국근대 여성문학이 처한 상황에 대해 시사해주는 바가 있어 보였다. 물론 그 학생들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수강신청을 변경했는지는 알 수 없다. ‘여성’, ‘젠더’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수업 진행 방식이나 담당 강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고, 대상 시기가 해방 이전이라는 것이 마뜩치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선 학과에서 강좌명을 ‘여성’ 대신 ‘성’으로 바꾸려 한 것부터,

국문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성문학’이 시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았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성’이 섹슈얼리티가 아닌 젠더라고 말할 때 학생들의 흔들리는 눈빛도 분명 목격했다. 더구나 요즘 소설도 아닌 식민지 시기의 문학을 일반 교양수업에서 한다는 사실에 내게 직접 찾아와서 아쉬움을 토로한 학생들도 실제 몇 명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 식민지 근대 여성문학’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흥미가 안 생기는 ‘비인기 과목’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이는 2000년대 이후의 한국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여전히 식민지 근대 시기의 여성문학과 관련한 논문들은 꾸준히 산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대상으로 한 ‘여성문학 연구’, ‘여성주의적 연구’는 이미 ‘낡은’ 구호처럼 보이고, 새로운 어젠다를 갖지 못한 채 비슷한 논의가 재생산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대로라면 영미 여성주의 문학 연구에서 먼저 제기되었다는 ‘여성주의의 위기’가 한국 문학 연구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닐 듯싶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연구에서의 여성문학의 위상이 어떠한지, 그간 여성문학연구의 새로운 방법론과 성과는 무엇이었으며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점검해보려 한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이후 여성문학 연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견하고, 현재 난관에 봉착한 한국 여성주의 문학과 문화 연구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2. 2000년대 이후 한국 식민지 근대 여성 문학 연구의 특징과 성과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한국 여성문학에 대한 연구¹⁾는 1990

1) 1980년대에 여성문학연구의 시작으로는 정은희·박혜숙·이상경·박은하의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여성』* 제1호, 창작과 비평사, 1985), 서정자의 '일제강점기 한국여류소설연구'(*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88), 김영혜·이명호·이혜

년대에 들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90년대에는 서구의 페미니즘에 관한 첨단 이론들을 기반으로 한국의 식민지 근대의 여성문학을 재발견하고 재해석하는 작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1990년대의 이러한 연구 경향은 연구의 대상인 여성문학보다 연구의 방법론이 우선시 됨으로써 특정 외국 이론에 한국의 여성문학 작품이 ‘이용’된다는 반성도 제기되었다.²⁾

그리하여 2000년대에는 여성문학 연구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점이 된 것이 서정자, 이상경, 최혜실 등의 연구였다. 이상경은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에서 한국 현실에 맞는 이론을 개발하고 구축해 나가야 하며, 우리의 구체적 경험으로부터 여성문학론을 구성해야 함을 역설하였다.³⁾ 서정자 역시 이상경의 주장에 동의를 표하며 여성의 실재, 여성의 체험과 관계된 여성 문학 연구가 중요함을 지적했다.⁴⁾ 그리고 최혜실은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를 통해 한국 여성문학 연구를 문화론적 연구로 확대하고, 지금-여기의 한국 여성이 가지는 문제의식들을 식민지 근대의 여성문학·문화 속에서 발견하고 해석하였다.⁵⁾

경의 「여성문학론 정립을 위한 시론」(『여성운동과 문학』, 실천문학사, 1988) 등을 꼽을 수 있다. 서정자는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출간한 『한국근대여성소설 연구』(국학자료원, 1999)에서 당시 “여성문학이라는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학계의 분위기” 속에서 여성문학 연구를 개척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여성소설 읽기는 여성소설 찾기로 시작해야”했을 정도로 여성문학 연구의 기반이 척박했음을 술회하고 있다(7쪽).

2)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11~12쪽.

3) 위의 책.

4) “페미니즘 문학에서 정치학과 미학을 함께 추구하는 자세가 아니라면 여성문학 연구는 형식주의 문학연구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지난 학술대회에서 이상경 교수가 지적했다시피 체험의 직접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여성 일반의 문제,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성문제를 보는 시각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페미니스트 시학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여성이 처해 있는 지금 여기의 현실입니다. 저는 여성문학 연구가 거대한 표면장력을 이루고 있는 존재라고 느꼈던 여성들의 실재, 여성의 체험과 무관해 지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 침묵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서정자, 『한국근대여성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9, 9쪽.

이들의 논의 이후로 2000년대의 한국 여성문학 연구는 서구의 페미니즘 이론에서 벗어나 여성의 문학, 문화, 담론, 사회현실 등에 대한 총체적이고 실증적인 고찰을 특징으로 하는 연구 경향이 강해졌다. 반면에 1980년대부터 1990년대의 여성문학 연구의 주된 흐름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 ‘반성’의 대상이 되었던, 서구의 페미니즘 이론을 문학작품에 적용하는 방식의 연구는 다소 주춤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의 여성문학 연구는 그 방법론에 따라 ① 여성문학의 형성과정과 기원을 밝히는 연구,⁶⁾ ②여성작가에 대한 전기적 연구,⁷⁾ ③문학작품에 재현된 여성 표상의 성격을 고찰하는 연구,⁸⁾ ④식

-
- 5)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6)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김양선, 「근대 여성문학의 형성 원리 연구」, 『어문연구』 제35권 제4호, 2007.
 김지영, 「근대적 글쓰기의 제도화 과정과 변환 양상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09.
 서정자, 『한국 근대 여성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9.
 심진경, 「문단의 여류와 여류 문단:식민지 시대 여성작가의 형성과정」, 『상허학보』 제13권, 2004.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이태수, 「여성성의 근대적 경험양상」,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0.
 7) 김복순, 「강경애의 ‘프로-여성적 플롯’의 특징」,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5호, 2008.
 김복순, 「전향자의 역사 다시쓰기-최정희의 <인간사>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4호, 2010.
 김인경, 「이선희 소설에 나타난 모더니즘적 특성 연구」, 『구보학보』 제2권, 2005.
 남은혜, 「김명순 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8.
 문미영, 「김명순 문학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6.
 박진희, 「백신에 소설의 아이러니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7.
 심진경, 「최정희 문학의 여성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7권 제1호, 2006.
 이상경, 「임순득의 소설 <대모>와 일제 말기의 여성문학」, 『여성문학연구』 제8호, 2002.
 정은경, 「백신에 문학의 낭만성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3호, 2011.
 최화송, 「강경애 소설의 주제와 변모양상 연구」,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2009.
 하신애, 「최정희 문학의 모성 주체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9.
 8) 노지승, 「한국근대소설의 여성 표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신수정,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여성의 재현 양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

민지 근대성의 개념을 통해 당대 젠더의 특수성을 살펴보는 연구,⁹⁾ ⑤당대의 사회·문화 및 담론·매체를 아울러 고찰하는 문화론적 연구¹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심진경, '1930년대 후반 장편소설의 여성 섹슈얼리티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02.

이영아, 「신소설의 개화기 여성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0.

이영아, 「신소설에 나타난 육체인식과 형상화 방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이혜령, 「한국 근대소설의 섹슈얼리티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0.

황수진, 「한국근대소설에 나타난 신여성상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1999.

9) 권명아, 「식민지 경험과 여성의 정체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6권 제1호, 2005.

김양선, 「근대 여성 작가의 지식/지성 생산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 『여성문학연구』 제25호, 2010.

김진희, 「1930년대 식민지 근대의 불모성과 여성」, 『여성문학연구』 제7호, 2002.

박정애, 「근대적 주체의 시선에 포착된 타자들」, 『여성문학연구』 제6호, 2001.

서지영, 「산책·웅시·젠더-1920~30년대 여성 산책자의 존재 방식」,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1호, 2010.

정영화, 『1930년대 여성문학의 근대성 인식양상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3.

10)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김동식, 「낭만적 사랑의 의미론」, 『문학과 사회』 제53호, 문학과 지성사, 2001.

김동식, 「풍속·문학·문화사」, 『민족문화사연구』 제19호, 민족문화사연구소, 2001.

김미영, 『1920년대 여성담론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

김미지, 『누가 하이칼라 여성을 데리고 사누-여학생과 연애』, 살림, 2005.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김주리, 『모던걸, 여우 목도리를 버려라: 근대적 패션의 풍경』, 살림, 2005.

김진송,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노지승, 『유혹자와 희생양』, 예옥, 2009.

문옥표 외, 『신여성』, 청년사, 2003.

박숙자, 「1920년대 사생활의 공론화와 젠더화」,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3호, 2006.

엄미옥, 『여학생 근대를 만나다』, 역락, 2011.

이경훈, 『오빠의 탄생』, 문학과 지성사, 2003.

이영아, 『예쁜 여자 만들기』, 푸른역사, 2011.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태혜숙 외,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

연구 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 연구팀, 『신여성』, 한겨레 신문사, 2005.

①, ②의 경우, 초기 여성문학 연구의 경향과 맞닿아 있는 것들이다. 여성 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여성 문학의 대상을 발굴하여 근대여성문학사의 기원을 찾고, 여기에 문학사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여성문학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기반 하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고찰하여 여성문학 형성의 내외적 동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여성문학사 기술에 토대가 되는 연구로서 그 가치를 가진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성문학 및 여성작가에 대한 지나친 의미 부여나 과장된 고평(高評)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③의 연구들에서는 대상 텍스트가 여성 작가·작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식민지 시기 문학 속에서 재현된 여성에 대한 연구는 여성 작가들뿐 아니라 남성작가의 작품들에서 나타난 여성 인물, 여성에 대한 시선 등도 연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1920~30년대에 남성작가들이 당대의 실존 여성작가들을 모델로 삼아 창작한 소위 '모델소설'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¹¹⁾ 이 작품들은 당대 여성작가들의 전기적 고찰에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를 갖고 있기도 하고, '신여성'들에 대한 남성적 시선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 연구들은 당대의 여성상, 여성의 사회적 위치, 특성, 의미 등이 남녀 모두의 시선을 통해 고찰한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다각도의 통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여성문학연구'의 범주를 남성작가의 작품들에게까지 확장시킨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 방법론이 너무 익숙한 것이어서 현재는 이를 통해 새로운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그 한계로 들 수 있다.

④의 경향을 띤 연구에서는 '제국주의 및 식민지 현실'과 '근대화의 과정'이라는 이중적인 역사적 특수성이 여성의 젠더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식민지 시기의 여성문학을 통해 살펴본다. 전자에 좀 더

11) 대표적인 것으로 김동인의 <김연실전>, 염상섭의 <해바라기>, <너희는 무엇을 얻었느냐> 등이 있다.

강조점을 둔 경우에는 식민지 상황이라는 억압적 현실이 ‘내부 식민지’적 존재인 여성들에게 이중적 질곡으로 작용했음을 밝히는 데에 치중하였다. 반면 후자인 근대화의 과정에 좀 더 강조점을 둔 경우에는 여성이 전근대 사회의 봉건적 인습으로부터 점차 해방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긍정적 시선을 보인다. 또한 양자를 함께 고려한 연구들에서는 이 시기의 이와 같은 복합적 상황들이 여성들의 젠더 정체성에 끼친 혼란, 시행착오 등에 주목한다.

⑤의 연구들은 2000년대의 가장 특징적 연구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초창기 여성문학 연구가 자료의 발굴에서부터 시작해야 했다면, 2000년대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간된 여성작가의 전집·선집들¹²⁾ 덕분에 과거에 비해 풍부하고 용이한 연구기반이 구축된 상태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 신문, 잡지 등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에 의해 자료에 대한 접근성 자체도 ‘비교적’ 높아졌다. 이로써 문학 연구가 이론의 첨단성 보다는 자료의 실증성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개별 작가나 특정 작품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당대의 여성의 문화, 담론, 현실 등에 대한 다각도의 규명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문화론적 연구는 한국문학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예를 들어 신여성, 구여성, 여학생, 노라, 모던 걸, 팜프파탈, 카페여급, 총

12) 김일엽선사문집 간행위원회 편, 『김일엽문집: 미래세가 다하고 남도록』, 인물연구소, 1974.

신희천 편, 『백신에 작품집』, 보성출판사, 1987; 김문주 편, 『백신에 작품집』, 지만지 고전선집, 2008; 이증기 편, 『백신에 선집』, 현대문학, 2009.

이상경 편, 『강경에 전집』, 소명출판, 1999.

이상경 편,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서정자 편, 『정월 라혜석 전집』, 국학자료원, 2001.

서정자 편, 『박화성 문학전집』, 푸른사상, 2004.

서정자 편, 『지하런 전집』, 푸른사상, 2004.

맹문재 편, 『김명순 전집: 시 희곡』, 현대문학, 2009; 서정자·남은혜, 『김명순 문학전집』, 푸른사상, 2010.

오태호 편, 『이선희 소설 선집』, 현대문학, 2009.

후부인 등 당대 여성들을 호명하던 개념을 중심으로 여성을 유형화하여 고찰된 식민지 근대의 한국 여성문학 및 문화 연구는 개별 작가론이나 작품론을 넘어서는 새롭고도 흥미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연애, 스위트홈, 하이칼라, 섹슈얼리티, 여성 소비문화 등의 화두를 통해 이 시기 여성의 문학·문화를 탐구하는 것은 학계 뿐 아니라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여성문학연구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키워드들이 흥미성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화두는 신선하지만, 그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현실인식에 어떠한 영감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많지 않다. 또는 그러한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들에서 출발했음에도 결론은 매번 유사하게 여성의 억압적 현실에 대한 개탄으로 그치고 마는 경향이 있다. 점차 세분화, 다양화되어가는 금세기 여성 내부의 현실적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에 여성문학·문화연구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요컨대 2000년대에는 식민지 시기 여성 작가·작품들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결실을 이룬 상태이다. 매해 수편의 여성작가론이 학위 논문 및 소논문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1920년대·1930년대 초중반·1930년대 말 등 시기별 여성 작가 및 작품들을 구분·해석하는 방식에도 ‘보편적인’ 틀이 마련되어 가는 듯 보인다.¹³⁾ 그리고 대상 작가의 문학작품 연구에 다양한 담론과 매체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는 새로운 연구 경향도 등장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여성문학 연구는 남성 중심의 근대(문학)사에 누락되어 있던 여성의 근대(문학)사를 복원하고, 남성적인 관점에서의 근대성에 균열을 일으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식민지 근대라는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정황이 지닌 복합적 양상이 당시 이중적 식민지(피식민국

13) 그런데 이와 같은 시기, 작가별 여성 문학 및 여성 작가를 분류하여 논의 하는 방식의 ‘보편화’는 ‘양날의 칼’로 보인다. ‘보편적 틀’은 ‘상투적 방법론’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상론은 3장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국민+여성)에 처해 있던 여성(문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더 명료하게 드러난 점은 그러한 성과의 한 예이다. 또한 여성의 문학과 삶이 재현하고 있는 일상문화에 대한 관심을 통해 문학·문화사를 ‘대문자의 역사’가 아닌 미시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게 했다는 점도 2000년대 이후 여성문학·문화연구의 성과이다.

3. 식민지 근대 여성 문학 연구의 한계와 과제

그러나 이러한 양적·질적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문화연구에 있어서 여성(문학·문화)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첫 번째로, 21세기 초부터 여성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던 현재적 문제의식을 돌아보는 대상으로서의 한국 근대 여성문학·문화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좀 더 심각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성문학 연구가 지금-여기의 여성들의 문제와 연동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십 년 전부터 그 필요의식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도된 좋은 연구들도 여럿 있다. 특히 문화론적 접근의 단행본들 중에는 그러한 시도로 여성문학학계뿐 아니라 더 광범위한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낸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단순한 ‘호기심’, ‘흥미’ 이상의 의미로 여성문학 연구에 있어 하나의 중심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은 여성과 관련된 현재적 문제의식이 더 섬세하고, 더 포월(抱越)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여성과 관련되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성매매여성, 외모지상주의,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 등의 문제들을 떠올려 보자. 이러한 것들은 쉽사리 단답형의 해결책이 나올 수 없는 사안들이다. 한국의 여성 내부에도 다시 계급, 학벌, 연령, 지역, 인종 등에 따른 다양한 차별과 억압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는 데에 여성문학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여성이어서 차별/억압받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에만 인용되는 여성문학으로는 지금-여기의 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 깊이 고찰하고 더 넓게 포착해내야 한다. 그리하여 여성 내의 분열과 반목을 극복한 더 크고 넓은 연대를 성취해내어야 한다.

두 번째, 여성 작가, 혹은 여성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끼리끼리’ 논의 되는 방식이 너무 오래 답습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다수의 여성문학 연구 논문들이 여성작가들‘만’ 묶어 논의하고 있다.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을 묶어 ‘제1세대 여성 작가’에 대한 논의를 하거나,¹⁴⁾ 박화성, 강경애, 백신애를 묶어 ‘제2세대(혹은 1930년대) 여성작가’로 논의하는 경우¹⁵⁾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여성문학 연구’라는 틀을 전제로 하고,

14)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논의된 연구들의 예는 논문의 제목, 또는 부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들만 꼽아도 다음과 같다; 권영아, 「근대문학 초기 여성소설 연구: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을 중심으로」, 울산대 석사학위논문, 1999; 신달자, 「1920년대 여류시 연구: 김명순, 김원주, 나혜석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0; 이유진, 「1920년대 한국 여성시 연구: 김명순, 김일엽, 나혜석의 시를 중심으로」, 부산외대 석사학위논문, 1996; 윤광옥, 「근대 형성기 여성문학에 나타난 가족 연구: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을 중심으로」, 동덕여대 박사학위논문, 2008; 안혜련, 「1920년대 <여성적 글쓰기>의 모색-나혜석, 김명순, 김원주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50호, 2003; 강신주, 「김명순, 김원주, 나혜석의 시」, 『국어교육』 제97호, 1998.

15) 이영숙, 「1930년대 여성작가의 여성문제 인식에 관한 연구: 강경애, 백신애, 박화성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8; 강인숙, 「1930년대 여류작가 작품 경향 연구: 박화성, 강경애, 백신애에 나타난 저항의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2; 이승아, 「1930년대 여성작가의 공간의식 연구: 강경애, 박화성, 백신애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0; 정수희, 「1930년대 여성작가의 여성의식 연구: 박화성 강경애 최정희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석사학위논문, 2006; 임선애, 「1930년대 한국여류소설 연구: 박화성, 강경애, 백신애의 작품을 중심으로」, 효성여대 박사학위논문, 1992; 김장미, 「강경애·박화성 소설의 동반자적 성격에 대한 비교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오상인, 「1930년대 한국여류소설연구: 박화성, 백신애, 강경애 작품에 나타난 빈궁의 문제를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89; 박인숙, 「1930년대 여성소설에 나타난 여성문제 인식 연구:박화성, 강경애, 백신애 소설을 중심으로」, 한성대 석사학위논문, 1995;

이때의 ‘여성문학 연구’가 여성 작가의 문학만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¹⁶⁾ 사실상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특히 여성 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가 미미했던 초창기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남성작가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근대문학사 속에 감추어져 있던 여성 작가들과 여성 작품을 발굴해 내고, 그것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가 진행된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고, 이미 상당한 양의 논의가 축적되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이제 이러한 반복적 분류 작업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기대할 수 있는 논의는 거의 다 나온 것이 아닐까? 다른 패러다임, 다른 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분류에 의거한 연구물이 재생산되는 데에는 그동안 여성문학연구계가 ‘주변부’로 취급 받는 ‘여성문학’을 다뤘다는 것만으로 이 연구들에 보여 온 과도한 ‘관용’이 원인은 아닌가 한다. 하지만 과연 이런 방식의 ‘답습’으로 여성문학, 혹은 여성문학 연구가 그 ‘타자성’을 극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러한 논의 방식의 고착화는 오히려 여성 문학 연구를 계속해서 ‘주변부’에 머물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

윤옥희, '1930년대 여성 작가 소설 연구: 박화성, 강경애, 최정희, 백신애, 이선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7; 허유진, '1930년대 여성소설 연구: 박화성, 백신애, 최정희, 이선희 소설을 중심으로', 경원대 석사학위논문, 1995; 임선애, '여성작가와 하층민의 재현양상: 박화성, 강경애, 백신애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6호, 2005; 신현주, '강경애, 백신애 비교연구: 시점과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1996; 유상진, '강경애, 백신애 소설의 대비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7; 김경희, '1930년대 여성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자기인식 양상 연구: 강경애와 백신애의 작품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4.

- 16) 정영자의 “여성문학은 여성이 쓰고, 여성의 삶과 인식을 담고 있으며, 여성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기여하는 문학이다. 따라서 여성적인 삶과 인식을 보여주면서 여성적인 것에 긍정적인 가치를 둔 작품이라도 남성 작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여성 문학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와 같은 여성문학의 개념 정의도 이와 비슷한 맥락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곧 여성문학 연구의 범위 역시 여성 작가에 대한 연구로 한정짓게 된다.; 정영자, '한국현대여성문학사', 세종출판사, 2010, 11쪽.

몇 가지 예를 들면, 서지영의 「산책·응시·젠더-1920~30년대 여성 산책자의 존재 방식」과 같은 연구에서 ‘여성 산책자’라는 개념을 통해 남성산책자의 젠더화 된 응시의 대상으로만 존재했던 여성에게 주체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고도 중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왜 굳이 ‘산책자’가 아닌 ‘여성 산책자’로 명명하여야만 했으며, 왜 나혜석과 이선희만이 논의의 초점이어야 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¹⁷⁾ 그리고 김장미의 「강경애·박화성 소설의 동반자적 성격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는 왜 ‘동반자적 성격’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소위 동반자 작가로 알려져 있는 남성 작가들과 함께 논의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임선애의 「여성작가와 하층민의 재현양상: 박화성, 강경애, 백신애를 중심으로」는 “1기의 여성작가들보다 문학적 소재를 (현실의 제반 문제로-인용자 주) 넓혔던 세 여성작가가 궁핍한 하층민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를 가지는가”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남성작가와 여성 작가의 비교를 통해서 여성 작가의 특성을 밝히려는 것은 아니다”¹⁸⁾라는 전제를 ‘당연시’하고 있다. 논문의 결론에 비추어 보아 하층민을 소설에서 다뤘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이 논문이 세 여성작가들을 한 데 묶어 논의하는 것은 그 필연성, 당위성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다.

다른 연구들의 경우에도 그러한 아쉬움은 종종 느끼게 된다. 여성 작가들 중 남성 작가들과 함께 묶여 논의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간혹 ‘모델소설’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 작가들의 작품이나 시선의 대상이 된 (실

17) 이 논문은 기존의 산책자 개념을 전유(專有)하고 있던 남성 작가(박태원으로 대표되는)에 대한 연구를 ‘전사(前史)’로 삼고, 이것이 여성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다르게 드러났는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것이 단지 한국 근대문학의 연구사에서 남성산책자 개념이 먼저 대두되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논의가 곧바로 박태원과 나혜석, 이선희를 대등한 초점 대상으로 한 그냥 ‘산책자’ 연구일 수는 없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남성산책자’ 박태원이 있는 후에 ‘여성산책자’ 나혜석이나 이선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양쪽이 함께 존재하는 방식으로 분석하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

18) 임선애, 앞의 글, 335쪽.

존했던) 여성 작가들은 남성작가들과 함께 논의되기는 하였다.¹⁹⁾ 또는 남성 작가들의 문학 작품에 형상화 된 (허구의) 여성의 표상과 여성 작가들이 비교되기도 한다.²⁰⁾ 그러나 이는 대등한 층위나 범주에서의 연구라 볼 수 없다. 이제는 여성 작가들을 다른 남성 작가들과(그들의 작품 속 여성이 아닌) 나란히 다루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현재 여성문학연구의 협소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강경애나 그녀의 작품 <인간문제>의 경우 정도만이 이기영, 한설야 등의 남성작가와 ‘함께’, ‘동등하게’ 논의될 뿐이다.²¹⁾ 그러나 다른 여성 작가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의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성/남성 작가의 영역을 굳이 의식하지 않고도 연구와 논의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여성문학 연구의 범위가 여성 작가 및 작품들끼리의 고찰로 굳어 있는 한, 여성문학과 남성문학은 항상 분리될 수밖에 없으며, 여성문학이 주변부에 위치하는 것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과 같은 틀로는 여성문학 연구의 성과는 여성문학을 대상으로 논문을 쓰려는 연구자들 외의 독자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성문학 연구가 현재와 같이 그 ‘내부’에서만 생산과 수용을 순환하는 구조인 한, 그 ‘외

19)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출판부, 1987; 황수진,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신여성상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1999; 배효진, 「1920년대 전기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세종대 박사학위논문, 2009; 송명희, 「근대소설에 나타난 신여성 모티프」, 『인문사회과학연구』제 11권 2호, 2010; 김명순, 「1920년대 초기 소설에 나타난 신여성 형상화 연구: 김동인, 염상섭, 현진건을 중심으로」, 목포대 석사학위논문, 2003.

20) 김양선, 「식민지 시대 민족의 자기구성방식과 여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8호, 2003; 전희진, 「식민지 초기 신여성의 공적 영역으로의 초대와 그 실재」, 『사회와 역사』 제88집, 2010; 김민정, 「일제시대 여성문학에 나타난 구여성의 정체성」, 『여성문학연구』 제14호, 2005.

21) 김은하, 「1930년대 리얼리즘 소설 연구: 강경애의 <인간문제>, 이기영의 <고향>, 한설야의 <황혼>론」,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93; 이수현, 「1930년대 경향소설의 이중서사 연구: 이기영의 <고향>과 강경애의 <인간문제>를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2.

부'의 연구자들은 이곳의 연구를 참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논문을 쓸 수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고 있다. 즉 여성문학 연구자들은 그 외부에 대한 고찰에 큰 공을 들이지 않아도 여성문학 연구를 하는 데에 큰 불편을 못 느낀다.²²⁾

과거에 여성문학이 그 '분리'를 감수하더라도 그동안 감춰져 있던 여성문학의 장을 복원하는 작업을 해야 했던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후학으로서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때이다. 지금이 정말 여성문학 연구의 어떤 '위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성문학 연구가 '소멸'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문학 연구가 '답보상태'인 것을 고심하고 있음을 뜻할 것이다. 즉 지금의 상태로 '우리들만의 리그'에 머물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위기 담론이 도출된 만큼, 그 대안의 첫 걸음은 여성문학 연구의 저변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여성문학 연구'가 여성문학만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닌, 여성문학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연구할 수 있는 학문이 되는 것이라라고 본다.

이를 위해 현재 여성문학연구 혹은 '한국여성문학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또 한 가지는, 여성문학연구가 여성들만의 연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문학학회에 더 많은 남성 연구자들이 참여해야 하며, 남/녀의 구분이 연구 대상은 물론 연구자 자체에서도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들 '내부'의 연대 뿐 아니라 '외부'와의 연대 또한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여성문학 연구는 산발적이고 불연속적, 단편적인 연구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도 여성문학연구의

22) 이러한 사태에 대해 심진경은 “사실 지금까지 ‘페미니즘 문학연구’라는 이름으로 수행된 작업이 대개 여성 이미지 비평이나 여성작가 중심의 문학사 기술에 치우쳐 왔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여성의 젠더적 이분법은 더욱 강화된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심진경·신수정·이혜령, '젠더의 시각으로 읽는 한국문학사⑤', 『파라21』, 2004. 봄, 386쪽.

구심점이 될 만한 총체적인 한국근대여성문학사가 기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2011년 한국 여성문학 연구가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한다.

소위 ‘한국여성문학론’, ‘한국여성문학 연구’를 책의 제목, 주제로 삼은 지금까지의 단행본 저서들은 적지 않은 양이 있다.²³⁾ 그러나 이들 연구서 중 근대 이후~해방 이전까지 통사적으로 한국 여성 문학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살펴본 저서는 『한국현대여성문학사』 정도 외에는 없었다. 그러나 『한국현대여성문학사』의 경우에도 문학사 기술은 매우 간략하고 개괄적인 ‘해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로 주요 여성 작가들에 대한 작가론을 모아 놓은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 외의 저술들은 거의 모두가 여성문학에 관련된 논문의 모음집 형태를 띠고 있다. 주로 여러 여성문학 연구자들이 각자의 논문을 모아 낸 논문집들이며, 연구자 개인의 단독저서인 경우에도 여러 지면을 통해 발표되었던 단편적 소논문들을 다시 엮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속에 여성문학사에 대한 개괄이나 유의미한 통찰을 보여주는 소논문들이 포함되었지만, 총체적이고도 심도 있는 여성문학사의 흐름을 일관되게 기술한 단행본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점은 솔직히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에 여성문학 연구가 근 30년이 진행된 시점까지 여성문학 연구자들이 구심점으로 삼을 만한 한국 근대 여성문학사에 대한 저서가 단 한 권도 없다니. 그동안 양산된 수많은 여성문학 관련 논문들의 수를 생각해 봐도 쉽게 납득하기 힘든 사실이다. 2003년 창간되었던 계간지 『과라21』에서 ‘젠더

23)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서정자, 『한국근대여성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9; 이명희, 『현대문학과 여성』, 깊은샘, 1998; 서강여성문학연구회, 『한국문학과 모성성』, 태학사, 1998;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편, 『한국문학과 여성』, 아세아문화사, 2000;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편, 『문학 속의 여성』, 월인, 2002;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이덕화, 『한국여성문학의 이해』, 예림기획, 2003; 고은미 외, 『여성문학의 이해』, 태학사, 2007; 박정애, 『여성문학의 타협과 저항』, 강원대출판부, 2008; 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소명출판, 2008; 조미숙, 『여성의 문학, 문학의 여성』, 한국학술정보, 2010; 정영자, 『한국현대여성문학사』, 세종출판, 2010.

의 시각으로 읽는 한국문학사' 연재를 통해 여성문학사, 혹은 여성이 포함된 문학사 기술이라는 의미 있는 시도가 있었지만, 잡지의 조기 폐간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말았다.²⁴⁾ 또 2008년에 나온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에서 이경하에 의해 여성문학사의 기술의 필요성이 다시 역설되었지만 그 후로 다시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4. 한국 여성문학사, 왜 ‘안/못’ 쓰나?

도대체 한국 근대여성문학사는 왜 아직도 못 써진 것일까? 혹은 안 써진 것인가? 이 문제는 단순히 ‘아직 없으니 앞으로 쓰자’와 같은 구호로 다짐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그 원인에 대해 심각하게 통찰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안’ 쓴 것이 아니라 ‘못’ 쓴 것이다. 즉 한국 근대여성문학사가 산출되기 어려운 데에는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이나 역량이나 요구가 없어서가 아니다. 물론탈근대성 논의 이후 문학사를 비롯

24) 이 연재 중 심진경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한다. “사실 한국문학사에서 남성/여성의 젠더적 구분은 상당히 많은 이분법들을 양산해 왔습니다. 외면/내면, 공적/사적, 객관/주관, 정신/육체 등등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실제 문학 텍스트에서 이러한 구분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젠더 이분화는 역으로 작가의 창작 방법이나 내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문학사가들 또한 이러한 구분법에 상당히 기대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젠더 정치학’의 방법으로 문학사를 다시보기(re-view)하는 것은 계몽, 이성, 정신으로 무장된 기존 한국문학사에서 결락된 부분을 채워넣는 작업인 동시에 어두운 심연이자 그림자로 숨겨져 왔던 ‘여성’이라는 영토를 탈환하여 새롭게 의미화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심진경의 말대로 필요한 것은 ‘여성문학사’를 넘어서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넘어섬’을 위해서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 『파라21』에서 기획했던 ‘젠더의 시각으로 읽는 한국문학사’였다; 심진경·신수정·이혜령, ‘젠더의 시각으로 읽는 한국문학사⑤’, 『파라21』, 2004.봄, 386쪽.

한 ‘역사’의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지닌 ‘근대적’ 자의성·허구성에 대한 반성이 여성문학사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²⁵⁾ 즉 여성의 그것이건 아니건 간에 ‘문학사’가 필요한가에 대해 전면적인 회의가 있는 최근의 학문적 동향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경하가 지적했듯 ‘근대적’ 자국문학사 서술이 여성 작가와 작품을 누락시켜 온 오류를 수정하는 데에 여성문학사가 기여할 수 있는 만큼, 한국문학사의 기술에 있어서 오히려 ‘근대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여성문학사가 지닌 가치이자 역할이다.²⁶⁾

따라서 난관은 다른 곳에서 비롯된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물적 토대’이다. 다시 말해 최소 책 한 권의 볼륨으로 여성문학의 흐름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할 만한 외적 여건이 여성문학 연구자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그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제 대학들에 만연한 ‘신자유주의적 대학체제’는 정부의 ‘대학정보공시’제도나 국내의 신문사 등이 시행하고 있는 대학평가 기준 때문에 업적 심사 과정에서 저서보다는 소논문 편수를 중요시하고 있다.²⁷⁾ “대학서열 경쟁에 거의 모든 교수·연구자들이 동원”²⁸⁾되는 현실 속에서 여성문학 연구자들이라고 자유로울 리 만무하다.

더 ‘뼈아픈’ 현실은 ‘여성 문학 연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연구자들의 신분 문제이다. 한국근대문학의 여성(문학)연구자들이 ‘여성문학’을 전공으로 대학에 취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오늘날 한국문학학계의 현실이다. 여성문학 연구자라는 사실은 교수 임용에 거의 아무런 이점으로도 작용하지 못한다. 더구나 대학에서의 학문 연구에 여성연구자들의 수는 19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가했으나, 학계·제도권의 ‘포용

25)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국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소명출판, 2008.

26) 위의 글, 58쪽.

27)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천정환, ‘신자유주의 대학체제의 평가제도와 글쓰기」, 『역사비평』 제92호, 2010 참조.

28) 위의 글, 190쪽.

력'은 이에 많이 못 미친다. 여성 교수의 비율은 2009년 당시 국공립대학의 경우 12.8% 수준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주요대학의 여교수 비율이 30% 이상인 것에 비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한다.²⁹⁾ 반면 여성 박사과정생은 2000년 24.7%에서 2009년 36.9%로, 박사학위 취득자는 20.8%에서 30.3%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여성 연구자의 '적체 현상'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교양교육을 위한 '강의전담 교수'라는 비정규직·비전임 교원 임용제도 덕에 이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 학자들의 취업은 전공분야의 정규직 전임 교원에 비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여성 연구자들의 많은 수가 대학에서 국문학 전공과목이 아닌 글쓰기, 사고와 표현 등의 교양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비정규직·비전임 교원들은 정규직·전임 교원들보다 강의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지며 고용안정성도 떨어진다. 전공 학문과 담당 과목의 분리라는, 연구에 있어서의 열악한 상황은 여성문학 연구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기 어렵게 한다. 게다가 그들 대부분이 1~3년 간격으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인 만큼 운신의 폭도 넓지 못하다. 또한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기 위해서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의 '기본 점수'를 위해 학술지에 소논문을 게재하는 일을 게을리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면초가 상태에 처한 이들이 '우직하게' 총체적인 여성문학사를 저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성취동기도 많지 않다. 현재 그나마 여성문학사에 가까운 단행본들이 대부분 기존에 학술지에 발표했던 논문들의 모음집의 형태를 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오늘날 여성문학 연구가 처한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외적 환경에 대한 개선, 혹은 극복이 필요하다. 우선 앞서 제기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과제, 즉 여성문학(연구)의 가치와 확장 가능성을 좁

29) 「국공립대 여교수 임용목표제 실패」, 『내일신문』, 2010.11.15.

더 적극적으로 발견하여 학계와 대중들에게 이를 알리는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차후의 연구와 논의들을 통해 ‘여성문학 연구의 시의성’을 증명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여성문학’은 현대문학연구에서 하나의 유의미한 세부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여성 문학 연구자들이 전공 분야로 취업할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 또는 현재 많은 여성 학자들이 처한 ‘비전입’, ‘비정년트랙’이라는 불안정한 신분, 지위가 보다 안정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원고지 150매 내외의 소논문과 최소 그것의 5~6배가 넘는 분량의 단행본 저서가, 같거나 겨우 2배의 실적으로만 인정되는 현재의 무조건적 양적 평가 기준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현실적·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없는 한, 열악한 현실적 여건을 모두 물리치고 여성문학사 기술이라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할 연구자가 등장하는 것은 앞으로 도 요원할 듯하다.

어쩌면 이러한 부분에서의 ‘개선’은 여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여성문학 연구의 기원과 맞닿아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운동’과 ‘실천’은 그 어떤 것보다도 여성(문학) 연구자들에게는 절실하고 긴급한 문제이다. 아직도 ‘여성’ 문학연구자들과 ‘여성문학’ 연구자들은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다. 여성문학 연구자들이 여성해방의 근원적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이들은 여성문학의 연구를 통해서 뿐 아니라 지금의 ‘우리’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실천적 투쟁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문학연구’나 제도학문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다. 이를 위해 이 ‘연대’는 젠더, 계급, 지역, 인종 등의 구분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여성문학연구자들의 ‘운동’과 ‘실천’에 더 많은, 더 다양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현재 활동 중인 여성운동가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연대와 실천을 위해 여성문학연구가 해야 할/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한국 여성문학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90년대에는 서구의 페미니즘에 관한 첨단 이론들을 기반으로 한국의 식민지 근대의 여성문학을 재발견하고 재해석하는 작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1990년대의 이러한 연구 경향은 연구의 대상인 여성문학보다 연구의 방법론이 우선시 됨으로써 특정 외국 이론에 한국의 여성문학 작품이 ‘이용’된다는 반성도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2000년대에는 여성문학 연구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그 출발점이 된 것이 이상경, 최혜실 등의 연구였다. 이상경은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에서 한국 현실에 맞는 이론을 개발하고 구축해 나가야 하며, 우리의 구체적 경험으로부터 여성문학론을 구성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최혜실은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를 통해 한국 여성문학 연구를 문화론적 연구로 확대하고, 지금-여기의 한국 여성이 가지는 문제의식들을 식민지 근대의 여성문학·문화 속에서 발견하고 해석하였다.

이들의 논의 이후로 2000년대의 한국 여성문학 연구는 서구의 페미니즘 이론에서 벗어나 여성의 문학, 문화, 담론, 사회현실 등에 대한 총체적 고찰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론적 연구의 경향이 강해졌다. 특히 신여성, 구여성, 여학생, 여류문단, ‘노라’, 모던걸, 팝문화, 카페여급, 총후부인 등 당대 여성들을 호명하던 개념을 중심으로 여성을 유형화하여 고찰된 식민지 근대의 한국 여성문학 및 문화 연구는 개별 작가론이나 작품론을 넘어서는 새롭고도 흥미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연애, 스위트홈, 하이칼라, 섹슈얼리티, 여성 소비문화 등의 화두를 통해 이 시기 여성의 문학·문화를 탐구하는 것은 학계 뿐 아니라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문학·문화연구에 있어서 여성(문학·문화)은 여전히 많은

난제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여성문학 연구가 보다 구체적이고 민감하게 현재적 문제의식과 맞닿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문학 연구가 여성작가·작품의 범주 내부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극복이 요구된다. 셋째, 불연속적이고 단편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여성문학사의 기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아직까지도 여성문학연구의 중심점이 될 만한 총체적인 한국근대여성문학사가 기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2011년 한국 여성문학론이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한다.

한국근대여성문학사가 산출되기 어려운 데에는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이나 역량이나 요구가 없어서가 아니다. 물론 탈근대성 논의 이후 문학사를 비롯한 ‘역사’의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지닌 ‘근대적’ 자의성·허구성에 대한 반성이 여성문학사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즉 여성의 그것이건 아니건 간에 ‘문학사’가 필요한가에 대해 전면적인 회의가 있는 최근의 학문적 동향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문제는 ‘물적 토대’이다. 최소 책 한 권의 불륜으로 여성문학의 흐름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할 만한 외적 여건이 여성문학 연구자들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행 제 대학들의 업적 심사제도가 저서보다는 소논문 편수를 중요시하고, 한국근대문학의 여성(문학)연구자들이 ‘여성문학’을 전공으로 대학에 취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 그리하여 그들의 대다수가 대학에서 전공이 아닌 교양교육에 ‘소모’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게 ‘우직하게’ 여성문학사를 저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현재 그나마 여성문학사에 가까운 단행본들조차 대부분 개인 혹은 여러 연구자들이 기존에 학술지에 발표했던 논문들의 모음집의 형태를 띠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따라서 오늘날 여성문학 연구가 처한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물적 토대에 대한 개선, 혹은 극복이 필요하다. 어쩌면 이는 여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여성문학 연구의 기원을 되돌아보는 일과 연관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문학연구 분야에 여성연구자들의 수는 19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가했으나, 학계·제도권의 ‘포용력’은 이에 많이 모자란다. 아직도 ‘여성’ 문학연구자들과 ‘여성문학’ 연구자들은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다.

여성문학 연구자들이 여성해방의 근원적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여성문학의 연구를 통해서 뿐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실천적 투쟁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한편으로 이 투쟁을 위한 ‘연대’를 이끌어 내는 데에 여성문학연구가 해야 할/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은미 외, 『여성문학의 이해』, 태학사, 2007.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김미지, 『누가 하이칼라 여성을 데리고 사누-여학생과 연애』, 살림, 2005.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출판부, 1987.
 김주리, 『모던걸, 여우 목도리를 버려라: 근대적 패션의 풍경』, 살림, 2005.
 김진송,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노지승, 『유혹자와 희생양』, 예옥, 2009.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편, 『한국문학과 여성』, 아세아문화사, 2000.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편, 『문학 속의 여성』, 월인, 2002.
 문옥표 외, 『신여성』, 청년사, 2003.
 박정애, 『여성문학의 타협과 저항』, 강원대출판부, 2008.

- 서강여성문학연구회, 『한국문학과 모성성』, 태학사, 1998.
- 서정자, 『한국근대여성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9.
- 엄미옥, 『여학생 근대를 만나다』, 역락, 2011.
- 연구 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 연구팀, 『신여성』, 한겨레 신문사, 2005.
- 이경훈, 『오빠의 탄생』, 문학과 지성사, 2003.
- 이덕화, 『한국여성문학의 이해』, 예림기획, 2003.
- 이명희, 『현대문학과 여성』, 깊은샘, 1998.
-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 이영아, 『예쁜 여자 만들기』, 푸른역사, 2011.
- 정영자, 『한국현대여성문학사』, 세종출판사, 2010.
- 조미숙, 『여성의 문학, 문학의 여성』, 한국학술정보, 2010.
-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 태혜숙 외,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
- 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소명출판, 2008.

2. 논문

- 강신주, 「김명순, 김원주, 나혜석의 시」, 국어교육 제97호, 1998, 349~367쪽.
- 강인숙, 「1930년대 여류작가 작품 경향 연구: 박화성, 강경애, 백신애에 나타난 저항의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2.
- 권명아, 「식민지 경험과 여성의 정체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6권 제1호, 2005, 71~114쪽.
- 권영아, 「근대문학 초기 여성소설 연구」, 울산대 석사학위논문, 1999.
- 김경희, 「1930년대 여성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자기인식 양상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4.
- 김동식, 「풍속·문학·문학사」, 『민족문학사연구』 제19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01, 71~105쪽.
- 김명순, 「1920년대 초기 소설에 나타난 신여성 형상화 연구: 김동인, 염상섭, 현진건을 중심으로」, 목포대 석사학위논문, 2003.

- 김미영, 『1920년대 여성담론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
- 김민정, 「일제시대 여성문학에 나타난 구여성의 정체성」, 『여성문학연구』 제14호, 2005, 197~219쪽.
- 김복순, 「강경애의 ‘프로-여성적 플롯’의 특징」,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5호, 2008, 311~343쪽.
- 김복순, 「전향자의 역사 다시쓰기-최정희의 <인간사>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4호, 2010, 225~256쪽.
- 김양선, 「근대 여성 작가의 지식/지성 생산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 『여성문학연구』 제25호, 2010, 7~30쪽.
- 김양선, 「근대 여성문학의 형성 원리 연구」, 『어문연구』 제35권 제4호, 2007, 241~263쪽.
- 김양선, 「식민지 시대 민족의 자기구성방식과 여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8호, 2003, 47~74쪽.
- 김은하, 「1930년대 리얼리즘 소설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93.
- 김인경, 「이선희 소설에 나타난 모더니즘적 특성 연구」, 『구보학보』 제2권, 2005, 175~204쪽.
- 김장미, 「강경애·박화성 소설의 동반자적 성격에 대한 비교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지영, 「근대적 글쓰기의 제도화 과정과 변환 양상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09.
- 김진희, 「1930년대 식민지 근대의 불모성과 여성」, 『여성문학연구』 제7호, 2002, 217~242쪽.
- 남은혜, 「김명순 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8.
- 노지승, 「한국근대소설의 여성 표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 문미영, 「김명순 문학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6.
- 박숙자, 「1920년대 사생활의 공론화와 젠더화」,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3

호, 2006, 179~198쪽.

- 박인숙, 「1930년대 여성소설에 나타난 여성문제인식 연구: 박화성, 강경애, 백신애 소설을 중심으로」, 한성대 석사학위논문, 1995.
- 박정애, 「근대적 주체의 시선에 포착된 타자들」, 『여성문학연구』 제6호, 2001, 54~80쪽.
- 박진희, 「백신애 소설의 아이러니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7.
- 배효진, 「1920년대 전기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세종대 박사학위논문, 2009.
- 서정자, 「일제강점기 한국여류소설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88.
- 서지영, 「산책·응시·젠더-1920~30년대 여성 산책자의 존재 방식」,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1호, 2010, 219~259쪽.
- 송명희, 「근대소설에 나타난 신여성 모티프」,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1권 2호, 2010, 1~27쪽.
- 신달자, 「1920년대 여류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0.
- 신수정,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여성의 재현 양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
- 신현주, 「강경애, 백신애 비교연구」,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1996.
- 심진경, 「1930년대 후반 장편소설의 여성 섹슈얼리티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02.
- 심진경, 「문단의 여류와 여류 문단」, 『상허학보』 제13권, 2004, 277~316쪽.
- 심진경, 「최정희 문학의 여성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7권 제1호, 2006, 93~120쪽.
- 안혜련, 「1920년대 <여성적 글쓰기>의 모색」, 『한국언어문학』 제50호, 2003, 307~328쪽.
- 오상인, 「1930년대 한국여류소설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89.
- 유상진, 「강경애, 백신애 소설의 대비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7.
- 윤광옥, 「근대 형성기 여성문학에 나타난 가족 연구」, 동덕여대 박사학위논문, 2008.

- 윤옥희, 「1930년대 여성 작가 소설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7.
-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국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소명출판, 2008, 41~60쪽.
- 이상경, 「임순득의 소설 <대모>와 일제 말기의 여성문학」, 『여성문학연구』 제8호, 2002, 331~384쪽.
- 이수현, 「1930년대 경향소설의 이중서사 연구: 이기영의 <고향>과 강경애의 <인간문제>를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승아, 「1930년대 여성작가의 공간의식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영숙, 「1930년대 여성작가의 여성문제 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8.
- 이영아, 「신소설에 나타난 육체인식과 형상화 방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 이영아, 「신소설의 개화기 여성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유진, 「1920년대 한국 여성시 연구: 김명순, 김일엽, 나혜석의 시를 중심으로」, 부산외대 석사학위논문, 1996.
- 이태숙, 「여성성의 근대적 경험양상」,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0.
- 이혜령, 「한국 근대소설의 섹슈얼리티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0.
- 임선애, 「1930년대 한국여류소설 연구」, 효성여대 박사학위논문, 1992.
- 임선애, 「여성작가와 하층민의 재현양상」, 인문과학연구 제6호, 2005, 335~364쪽.
- 전희진, 「식민지 초기 신여성의 공적 영역으로의 초대와 그 실재」, 『사회와 역사』 제88집, 2010, 229~265쪽.
- 정수희, 「1930년대 여성작가의 여성의식 연구」, 한국외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정영화, 「1930년대 여성문학의 근대성 인식양상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3.
- 정은경, 「백신에 문학의 낭만성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3호, 2011,

285~320쪽.

천정환, 「신자유주의 대학체제의 평가제도와 글쓰기」, 『역사비평』 제92호, 2010, 185~209쪽.

최학송, 「강경애 소설의 주제와 변모양상 연구」,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2009.

하신애, 「최정희 문학의 모성 주체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9.

허유진, 「1930년대 여성소설 연구」, 경원대 석사학위논문, 1995.

황수진, 「한국근대소설에 나타난 신여성상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1999.

Abstract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 of the Study on Korean women's modern literature

Lee, Young-ah

This paper aimed to survey the researches of Korean women's modern literature which have produced since the year of 2000. It also searched for the problems of these researches and the way to solve the problems.

Nowadays the studies of Korean women's modern literature have some problems. First, these studies should try to meet problematic reality of Korean women more concretely and penetratively. Second, these studies need to overcome the narrow category of 'the study of women's literature'. At last, these studies is wanted to narrate the history of Korean women's modern literature.

Especially the description of the history of Korean women's modern literature is most important for the progress of the studies of Korean women's modern literature. However, it is very hard because of the poor conditions that researchers of this area are in. Therefore, their academic conditions should be solved at first in order to be narrated the history of Korean women's modern literature, and eventually, to develop the studies of Korean women's modern literature.

Key words: Korean women's modern literature, the study of Korean women's modern literature, feminism, academic conditions, colonial modernity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